

# 글로벌 ICT 산업 회수(exit)시장 동향과 시사점: IPO와 M&A를 중심으로

■ 강 유 리\*

창업·벤처 생태계에서 회수(exit)시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회수시장은 투자자에게는 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가에게는 자신의 아이디어나 상품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다른 사업 및 아이디어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이라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최근 창업 열풍으로 창업·벤처기업 수 및 신규투자액 증가 등 창업 단계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회수 단계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와 반대로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티지아이에프(TGiF: Twitter, Google, iPhone, Facebook)와 중국의 탭스(TABX: Tencent, Alibaba, Baidu, Xiaomi) 등 ICT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상품으로 창업하여 빠르게 성장한 선도기업들이 IPO 및 M&A를 통해 수많은 창업·벤처기업의 회수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특히, 2014년은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중국 알리바바의 IPO 등 20조 원이 넘는 대규모의 거래가 줄지어 일어나면서 글로벌 ICT 회수시장이 호황을 맞은 해였다. 한편 다음의 카카오 인수 및 옐로모바일이라고 하는 M&A를 적극적으로 하는 창업기업의 등장 등으로 조용하기만 했던 국내 회수시장에도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하면서 회수시장이 활성화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ICT 산업 회수시장의 주요 트렌드를 IPO와 M&A 시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국내시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043)531-4257, xiaojie622@kisdi.re.kr

## 목 차

- I. 서 론 / 2
- II. 벤처 생태계의 회수시장 개관 / 3
  - 1. 회수시장의 중요성 및 주요 수단 / 3
  - 2. 우리나라 회수시장 현황 / 4
- III. 글로벌 ICT 회수시장 현황 / 7
  - 1. ICT 회수시장 개요 / 7
  - 2. IPO 시장 / 10
  - 3. M&A 시장 / 14
- IV. 종합 및 시사점 / 18

## I. 서 론

미국의 티지아이에프(TGiF: Twitter, Google, iPhone, Facebook) 및 중국의 탭스(TABX: Tencent, Alibaba, Baidu, Xiaomi)라는 용어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상품으로 단기간에 성공 반열에 오른 ICT 기업들을 가리킨다. 이 기업들이 창업·벤처 생태계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기업들이 창업·벤처 생태계 내 회수시장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스스로 IPO라는 최종 회수수단을 통해 모든 창업·벤처기업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영토 확장, 수

익 다변화 및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수많은 ICT 창업·벤처기업을 M&A함으로써 다른 창업·벤처기업들에게 중간 회수시장을 제공하고 있다.

‘창업→성장→회수→(재도전·재창업)’이라는 벤처의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볼 때, 그 동안 우리나라는 정부 및 민간의 노력을 통해 창업 단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2001년 1만개였던 벤처기업수가 2만개를 달성하는데 9년이 소요된 반면 3만개 달성에는 약 5년으로 빠르게 벤처기업수가 증가하였으며, 벤처캐피탈의 2014년 신규 투자액은 1조 6,393억 원으로 200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렇듯 많은 기업들과 자금이 창업·벤처 생태계로 유입되고 있지만 유입 이후 성장과 회수에 있어서는 명확한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회수시장이 막혀있다는 문제는 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창업 단계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과 달리, 2014년 글로벌 회수시장은 매우 활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글로벌

ICT 산업을 중심으로 IPO 시장과 M&A 시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벤처 생태계의 회수시장 개관

### 1. 회수시장의 중요성 및 주요 수단

‘창업→성장→회수→(재도전·재창업)’으로 이해되는 창업·벤처 생태계에서 창업(startup)이 입구라면 회수(exit)는 출구라 할 수 있다. 고인 물이 썩는 것처럼 출구가 막혀 있다면 선순환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창업·벤처 생태계에서 회수시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창업가 또는 창업기업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있어서 회수시장은 투자한 자금을 찾을 수 있는 시장이다. 한편, 창업가 또는 기업에 있어서 회수시장은 기술 융·복합 시대에 단독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기술, 상품 및 서비스를 다른 기업과 손잡고 시너지를 내거나 외부 자금을 조달하여 기존의 아이디어 심화 및 새로운 아이디어 실현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회수시장에서 통용되는 수단으로는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프로젝트 투자<sup>1)</sup>, 주식 또는 채권 매각 및 상환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세컨더리 시장을 통해 다양한 수단이 생겨나고 있지만, 투자자 및 창업·벤처기업 입장에서 성공적인 회수라 하면 주로 중간 회수수단인 M&A와 최종 회수수단인 IPO이다.<sup>2)</sup>

회수시장에서 IPO(Initial Public Offering)라 함은 기업의 발행주식을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팔아 자금을 공개적으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3호,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7조의2에 따르면, 프로젝트 투자는 “중소기업이 개발 또는 제작하는 사업수행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수익을 분배하며, 타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투자”이다.

2) 조유리·강유리·김홍식(2014)에 따르면, 프로젝트 투자는 투자 지분의 매각이 아닌 투자 수익금의 회수라는 측면에서, 주식·채권 매각 및 상환은 성공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투자 지분을 장외에서 매각하거나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는다는 측면에서 창업·벤처기업의 성공에 대한 보상과는 괴리가 있다.

로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sup>3)</sup> 창업·벤처기업 입장에서 IPO는 자금조달 능력을 확보하며, 기업경영을 합리화할 뿐만 아니라 공적 기업으로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존 투자자에게 자본이익을 증대시키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IPO는 많은 비용(법무비용, 회계비용, 서류작업 등의 행정 비용)이 소요되어 IPO 실패시 상당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으며, 성공시에도 비상장회사로 남았을 때보다 낮게 가치를 평가받을 위험이 있다.<sup>4)</sup>

한편, M&A(Merger and Acquisition)는 대상기업의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 또는 소유하거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결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 중 합병(Merger)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기업결합이며, 인수(Acquisition)는 자본적 결합으로 느슨한 형태의 결합이다.<sup>5)</sup> IPO가 창업·벤처기업에 있어 최종적 목적지라 한다면, M&A는 IPO 이전에 창업·벤처기업의 생애주기에 있어 어느 때나 몇 번이나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창업·벤처기업 및 투자자에 있어 실질적인 회수수단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는 상위 5~10%의 창업·벤처기업만이 IPO를 하며,<sup>6)</sup> 나머지 기업들에게는 구글 및 페이스북 등과 같은 대기업에 회사를 파는 것이 더 적합한 회수전략이라고 알려져 있다.

## 2. 우리나라 회수시장 현황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회수시장은 장외매각 및 상환이나 프로젝트 투자의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반면 성공적인 회수방법이라 할 수 있는 IPO나 M&A는 채 30%가 되지 않는다. 2015년 3월 기준으로 IPO와 M&A는 각각 25%와 0.7%로 M&A보다는 IPO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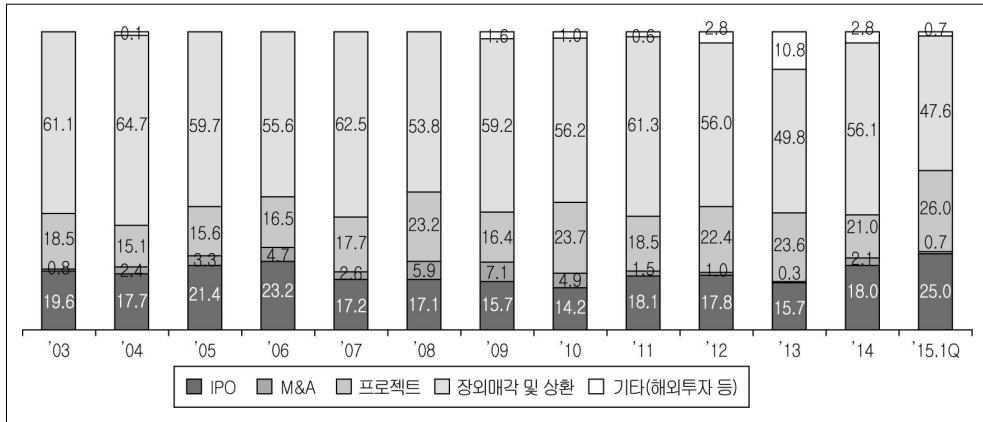
3) IPO가 폐쇄적으로 경영되던 기업주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상장(listing)은 증권선물거래소를 통해 기준을 충족하는 유가증권이 집단적·대량적으로 매매될 수 있도록 승인받는 것으로 IPO를 원활히 하기 위해 상장이라는 수단을 활용한다.

4) 조유리·강유리·김홍식(2014), p.43.

5) 조유리·강유리·김홍식(2014), p.44.

6) <http://avc.com/2010/06/ipos-just-arent-what-they-used-to-be/>.

[그림 1]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회수유형별 회수현황(2003~2015. 1Q)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2015), p.50.

2010년 이후 침체를 보였던 IPO 시장은 2014년에 신규 IPO수가 전년 대비 81.1% 증가한 67건을 기록하며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2015년 5월 기준으로 3만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IPO는 여전히 극소수의 창업·벤처기업만이 도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IPO 소요기간이 2006년에 이미 10년을 초과하였고, 2013년에는 13.8년으로 사실상 창업·벤처기업이나 투자자에 있어 회수수단으로의 매력도는 낮다.

한편, 2011년 이후 전체 회수시장 규모에서 M&A의 비중이 1~2%라는 것은 회수 수단으로써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반영하듯 2014년에 우리나라 ICT 분야 창업·벤처기업이 M&A된 건수는 벤처기업과 주식교환 방식으로 연합체를 구성하는 독특한 컨셉의 옐로모바일<sup>7)</sup> 참여건수를 제외하면 30여 건이 채 안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NHN엔터테인먼트가 네이버에서 분할된 뒤에 비(非)게임 분야인 간편결제, 전자상거래, 보안 등에서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M&A를 하

7) 옐로모바일(2015)의 2014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8월에 설립된 이후 2년간 약 70여 건의 M&A를 통해 53개(2014년 12월 말 기준)가 되는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 말 IPO를 준비하고 있다.

고 있지만, 비교적 자금력이 풍부하다고 판단되는 대기업의 창업·벤처기업 M&A가 활발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1〉 우리나라 ICT 창업·벤처기업 주요 M&A 현황(2014)

인수/합병 주체	인수/합병 대상
NHN 엔터테인먼트	에이컴메이트(중국 쇼핑몰 운영), 티켓링크(티켓 판매 대행), 아이유미디어(SW 개발 및 제작), 인크루트(취업사이트 운영), 천삼백케이(디자인 전문 쇼핑몰), 고도소프트(쇼핑몰 솔루션), 버즈비(콘텐츠 큐레이션), 피애피시큐어(DB보안 솔루션), 네무스텍(SW 개발 및 공급), 지누스포츠(스포츠의류 제작), 비쓰리스타즈(미국 패션 B2B), 한국사이버결제(결제), 파이오링크(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다음 (다음카카오)	카카오(모바일 메신저), 서울버스(버스 도착 정보 앱), 유저스토리랩(SNS 서비스)
엔씨소프트	레진엔터테인먼트(웹툰 사이트), 바이로봇(드론 제작), 노븐(인디 모바일 게임)
판도라TV	노바토(모바일 메신저)
라인플러스	위트스튜디오(SW 개발)
소프트뱅크	드라마피버(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엘로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바일 광고 관련: 이모션글로벌(디지털 마케팅), 퍼플프렌즈(모바일 광고), 이노버즈미디어(디지털 마케팅), 레코벨(데이터 컨설팅), 애드쿠아인터랙티브(광고대행), 퓨처스트림네트웍스(모바일 광고 플랫폼), 마더브레인(광고 대행), 비씨엔엑스(블로그 마케팅), 리얼로거코리아(바이럴 마케팅), 앱뱅(모바일 게임 전문 마케팅), 아이디어포크(페이스북 앱 제작)</li> <li>- 여행 관련: 투어스크랩(여행 플래닝 공유 플랫폼), 여행박사(여행 예약 사이트), 티켓매니아(온라인, 모바일 티켓 판매), 모지트(모바일 티켓 및 결제), 우리펜션(펜션 예약 서비스), 제주모바일(제주도 티켓 예약)</li> <li>- 모바일 콘텐츠/커뮤니티 관련: 일킬로(지역기반 SNS), 말랑스튜디오(모바일 콘텐츠), 피키캐스트(모바일 콘텐츠 유통 채널)</li> <li>- 로컬 비즈니스 관련: 가람정보시스템(호텔 객실 정보 서비스), 바비톡(SW 개발), 클레버커뮤니티(광고 대행), 달리커뮤니케이션(광고물 제작), 엘로디자인(인테리어 디자인), 씨리얼(전자부품, SW), 엔씨터솔루션(SW 개발·공급), 제이티넷(전자지불 대행)</li> <li>- 커머스 인프라 관련: 플레이오토(온라인 쇼핑몰 관리 솔루션), 포스트베이(미국 해외 직구 배송 전문), 프라이스에어리어(인도네시아 오픈마켓)</li> </ul>
랩조이	파이브락스(모바일 게임 운영 분석)
우아한언니들	가치커뮤니케이션(타겟팅 전문 마케팅)

주: 1)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M&A(일부 지분 투자도 포함)는 포함하되, 계열사간 M&A는 제외  
 2) 공개된 주요 거래 기준이며, 모든 거래를 포함하지 않은 것임에 유의  
 자료: 엘로모바일(2015), NHN엔터테인먼트(2015), Platum(2015) 및 신문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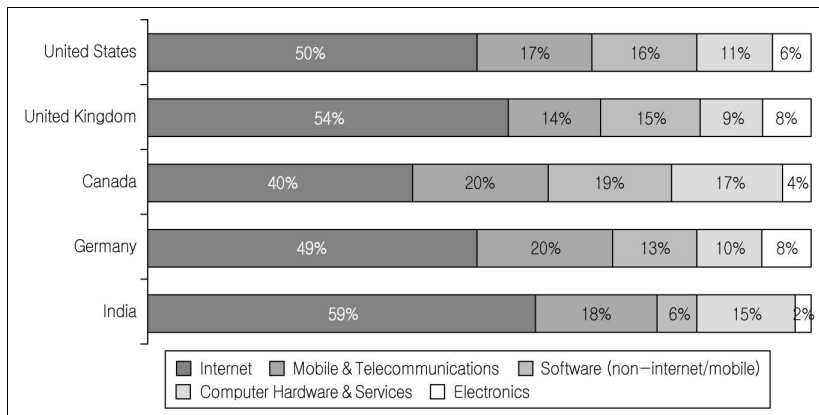
### Ⅲ. 글로벌 ICT 회수시장 현황

#### 1. ICT 회수시장 개요

창업·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DB를 보유한 CB Insights(2015)에 따르면, 2014년 글로벌 ICT 회수시장에서 전체 2,886건 가운데 2,807건이 M&A로 M&A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10억 달러 이상의 규모의 대형 거래도 있지만, 대부분이 2억 달러 미만에서 성사되었다. 회수되는 시기까지 제도적 자본(벤처캐피탈, 사모펀드, 성장자본)을 조달하지 못한 기업이 60~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20~30%의 기업만이 외부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고 있는 셈이다.

회수된 기업 수 기준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및 인도가 큰 시장을 형성하였다. 중국은 건수기준에서는 6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규모면에서는 알리바바의 IPO와 알리바바의 유씨웹(UCWeb) 인수 등 큰 규모의 거래가 많았다는 특징이 있었다. 상위 5개국의 ICT 분야별 회수 비중을 보면, 인터넷이 50% 이상을 차지하며, 모바일과 통신, 소프트웨어 순으로 하드웨어 분야보다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회수시장이 더

[그림 2] 주요국 ICT 분야별 회수기업 수 비중(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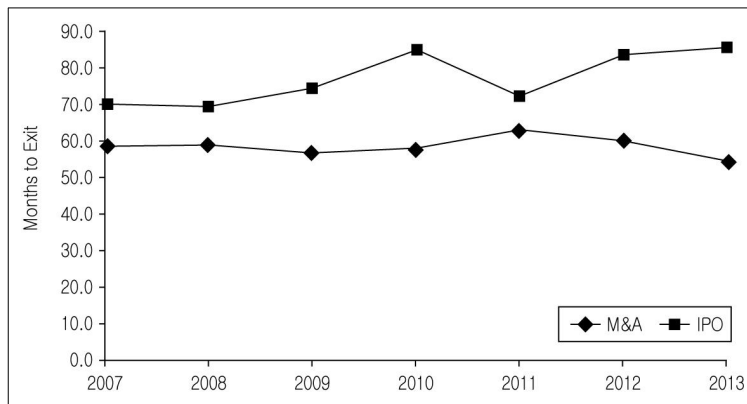


자료: CB Insights(2015), p.11.

활발하였다. 인도의 경우 인터넷 분야에서 회수가 활발한 것은 최근에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IPO 소요기간이 M&A 소요기간보다 길다. CB Insights가 2007년 이후 회수된 ICT 기업들을 추적한 결과를 보면, 2007년 IPO 소요기간은 5.8년에서 2013년 7.1년으로 약 1.3년 정도 늘어났다. 반면, M&A는 동기간 동안 4.9년에서 4.5년으로 약 0.4개월 감소하여 두 회수수단간 소요기간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그림 3] 글로벌 ICT 기업의 평균 회수 소요기간 추이(2007~2013)



자료: CB Insights(2013. 11. 7).

한편, ICT 벤처기업<sup>8)</sup>의 회수활동을 보면 2014년에는 640개사가 회수되어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하였다.<sup>9)</sup> 이 중 92%에 해당하는 589개사는 M&A를 통해, 나머지 51개사는 IPO를 통해 회수되었다. 비록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는 거래금액 규모가 큰 후기단계(시리즈D 이상)이지만, 후기단계로 갈수록 회수되는 기업 수는 점차

8)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 투자비중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기술보증 및 대출을 받은 기업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벤처기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러한 별도의 법적 정의가 없다. 벤처캐피탈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벤처기업으로 보고 있다.

9) CB Insights(2015), p.16.



감소한다.<sup>10)</sup> 절반에 가까운 44%의 기업들이 seed나 시리즈A 투자를 받은 이후의 단계에서 회수되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초기 단계에서 회수활동이 활발하였다.

2014년에 M&A로 회수된 벤처기업들은 회수 전까지 1,0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을 조달한 반면, IPO까지 가는 기업들의 경우 1억 달러 이상까지 자금을 조달하였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는 IPO의 규모가 M&A 규모를 상회하지만, 2014년의 경우 상위 10위 내에 있는 회수현황을 보면 IPO의 규모의 합이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금액을 하회하였다.

〈표 2〉 미국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은 상위 10개 ICT 창업기업 회수 현황(2014)

벤처기업	회수형태	회수 규모 (백만 달러)	투자자
WhatsApp (모바일 메신저)	M&A (Facebook)	22,000	Sequoia Capital
Lending Club (P2P 대출)	IPO	5,417	Norwest Venture Partners, Kleiner Perkins Caufield & Byers, Morgenthaler Ventures, Union Square Ventures
Zayo Group Holdings (네트워크 운영)	IPO	4,448	Oak Investment Partners, Battery Ventures, Columbia Capital, Centennial Ventures
GoPro (액션 카메라 제조)	IPO	3,100	US Venture Partners, Walden International, Steamboat Ventures
Arista Networks (네트워크 스위치 운영)	IPO	2,734	Khosla Ventures, Index Ventures
GrupHub Seamless (온라인 음식 주문 서비스 플랫폼)	IPO	2,038	Lightspeed Venture Partners, Benchmark Capital, DAG Ventures
Oculus VR (가상현실 헤드셋 제조)	M&A (Facebook)	2,000	Spark Capital, Founders Fund, Matrix Partners, Andreessen Horowitz, Formation 8

10) CB Insights(2015), p.17.

벤처기업	회수형태	회수 규모 (백만 달러)	투자자
AirWatch (기업용 모바일 관리 솔루션)	M&A (VMware)	1,540	Insight Venture Partners, Accel Partners
Castlight Health (병원 진료비 비교 서비스)	IPO	1,400	Oak Investment Partners, US Venture Partners, Venrock, Maverick Capital
OnDeck Capital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대출)	IPO	1,323	Google Ventures, Khosla Ventures, RRE Ventures, Foundation Capital, First Round Capital

자료: CB Insights(2014. 12. 25) 수정 인용.

## 2. IPO 시장<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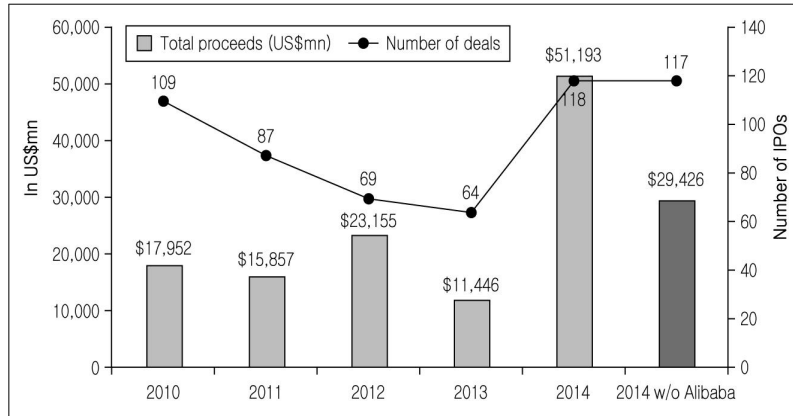
지난 5년간(2010~2014년) 글로벌 ICT 시장에서 총 447건의 IPO를 통해 1,196억 달러가 조달되었다. 2014년은 당해 거래금액 및 건수가 512억 달러, 118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347.3%와 84.4%가 증가하여 지난 4년간의 규모 정체 및 건수 감소에서 벗어나 반등을 이룬 해였다.<sup>12)</sup> 2014년은 사상 최대 금액(218억 달러)의 IPO를 한 알리바바를 제외하여도 규모면에 있어 전년대비 157.1%가 증가하였는데 2014년의 이와 같은 성과는 전 세계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디지털 혁신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함에서 기인한 바가 컸다.<sup>13)</sup>

11) 이하 IPO 및 M&A 시장을 살펴봄에 있어서 벤처기업에 한하지 않고 ICT 시장 전체에서 기술하도록 한다.

12) 2012년에는 페이스북이 160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가치로 IPO를 하였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2012년은 지난 5년간 중 금액면에서 가장 작은 규모를 보인다.

13) PwC(2015).

[그림 4] 글로벌 ICT 산업 IPO 추이(2010~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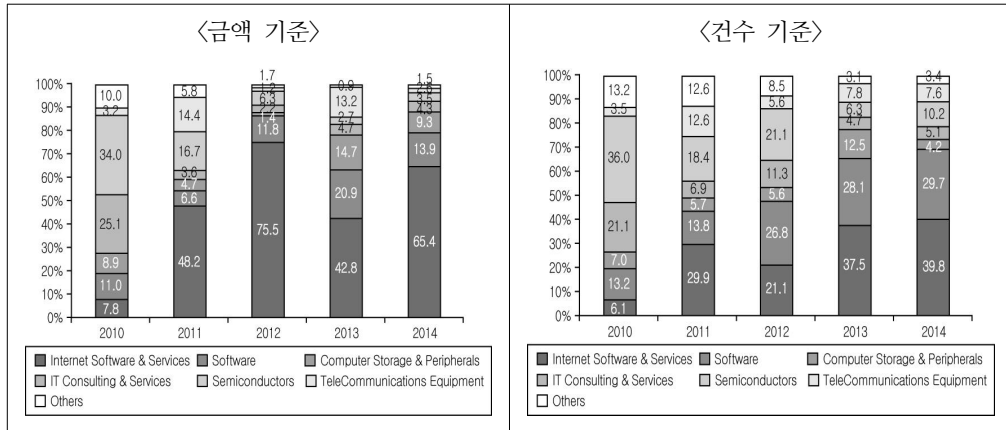
주: ICT 세부 분야는 인터넷 소프트웨어/서비스(Internet Software & Services), 소프트웨어(Software), 컴퓨터 스토리지/주변장치(Computer Storage & Peripherals), IT컨설팅/서비스(IT Consulting & Services), 통신장비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및 기타(Others)임

자료: PwC(2015), p.27.

업종별로 보면 인터넷 소프트웨어/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분야는 2014년 금액기준으로 각각 65.4%, 13.9%의 비중으로 전체 ICT 산업 IPO의 80% 정도를 차지하였다. 인터넷 소프트웨어/서비스 분야는 2011년부터 증가 추세가 뚜렷한데, 여기에는 전자상거래 및 모바일 솔루션의 빠른 확산에 따라 이 분야의 기업(예: 알리바바 등)이 참여한 대규모 거래에 기인한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① 데스크톱에서 모바일 컴퓨팅으로, ② 물리적 인프라에서 클라우드로, ③ 설치 기반에서 서비스 기반 소프트웨어로 진화가 진행<sup>14)</sup>되면서 지난 3년(2012~2014년)간 72건의 IPO로부터 122억 달러를 조달하며 두 번째로 중요한 분야가 되었다. 통신장비 분야를 제외하고 2014년에는 나머지(컴퓨터 스토리지/주변 장치, IT 컨설팅/서비스, 반도체 및 기타) 업종 모두 2013년 대비 증가한 거래규모를 기록하였다.

14) *Forbes*(2013. 9.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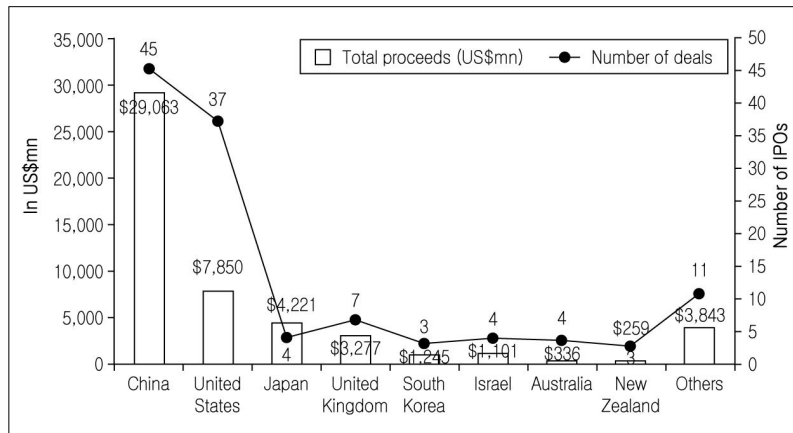
[그림 5] ICT 세부분야별 IPO 비중 추이(2010~2014)



자료: PwC(2015) 재구성.

2012년 이후 ICT 산업의 IPO 건수 및 규모에 있어 미국시장이 강세를 보여 왔지만, 2014년은 중국 ICT 기업들의 급성장으로 미국이 2위로 밀려났다.

[그림 6] 국가별 ICT 산업 분야 IPO 현황(2014)



자료: PwC(2015), p.12.

2014년에 중국 ICT 기업들의 IPO는 2013년 대비 금액 및 건수에서 각각 2,810%

와 463% 증가라는 매우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유럽의 경우에는 영국 기업들의 활발한 IPO 규모가 유럽 전체의 48%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성장을 이끌었다.

〈표 3〉 주요국 ICT 산업의 IPO 추이(2010~2014)

(단위: 억 달러, 건수,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3년 대비 2014년 증가율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미국	22	19	49	24	203	32	76	35	79	37	3.9	5.7
중국	92	70	74	50	24	33	10	8	291	45	2,810	463
유럽	45	6	18	6	4	3	15	8	68	14	353	75

자료: PwC(2015) 재구성.

2014년에 상장한 규모 상위 10개 기업을 보면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분야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중국의 알리바바와 제이디닷컴(JD.com)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다.

〈표 4〉 글로벌 ICT 분야 상위 IPO 리스트(2014)

기업	분야	조달 규모 (백만 달러)	주요 상장소
Alibaba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인터넷	21,767	NYSE (뉴욕 증권거래소)
Japan Display (일본 디스플레이 제조사)	컴퓨터 주변기기	3,084	Tokyo SE (도쿄 증권거래소)
JD.com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인터넷	1,780	NASDAQ (미국 장외 주식시장)
Rocket Internet (독일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인터넷	1,764	XTRA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
IMS Health (미국 헬스케어 컨설팅업체)	IT 서비스	1,495	NYSE
Markit (영국 금융서비스 제공사)	소프트웨어	1,283	NASDAQ

기업	분야	조달 규모 (백만 달러)	주요 상장소
Samsung SDS (한국 소프트웨어 업체)	소프트웨어	1,063	한국거래소
Mobileye (이스라엘 지능형 운전보조 시스템 업체)	소프트웨어	890	NYSE
Lending Club (미국 P2P 대출업체)	인터넷	870	NYSE
Worldline (프랑스 지불결제업체)	컴퓨터 주변기기	782	EPA (유로넥스트 파리 증권거래소)
상위 10건의 평균 규모		3,4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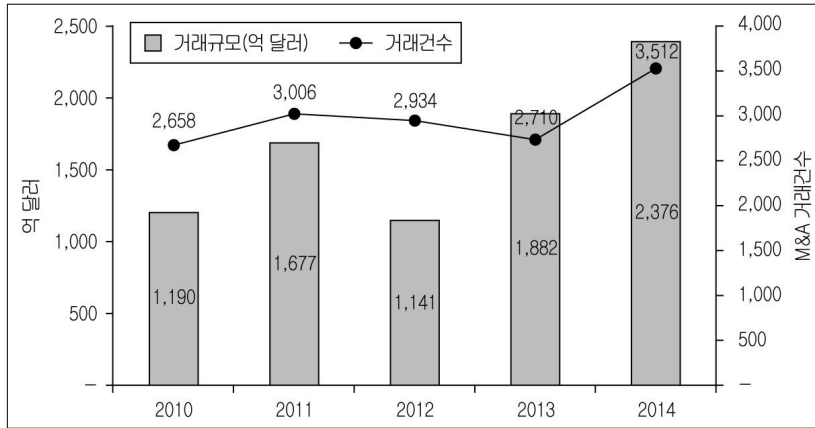
자료: PwC(2015) 재구성.

### 3. M&A 시장

글로벌 ICT 산업 M&A 시장 또한 2014년은 거래규모 및 거래건수에 있어 최근 5년간에 있어 매우 활발한 해였다. 전년동기 대비 거래규모는 26.2%가 증가한 2,376억 달러, 거래건수는 29.6%가 증가한 3,512건을 기록했다. 연초부터 레노버의 IBM 및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등 대규모 거래가 연달아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년에만 구글은 35건, 야후는 22건, 마이크로소프트는 9건, 애플, 페이스북, 트위터는 각각 8건 등의 M&A를 추진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글로벌 M&A 시장을 이끌었다.<sup>15)</sup>

15) ICON Corporate Finance(2015), p.1.

[그림 7] 글로벌 ICT 산업 분야 M&A 추이(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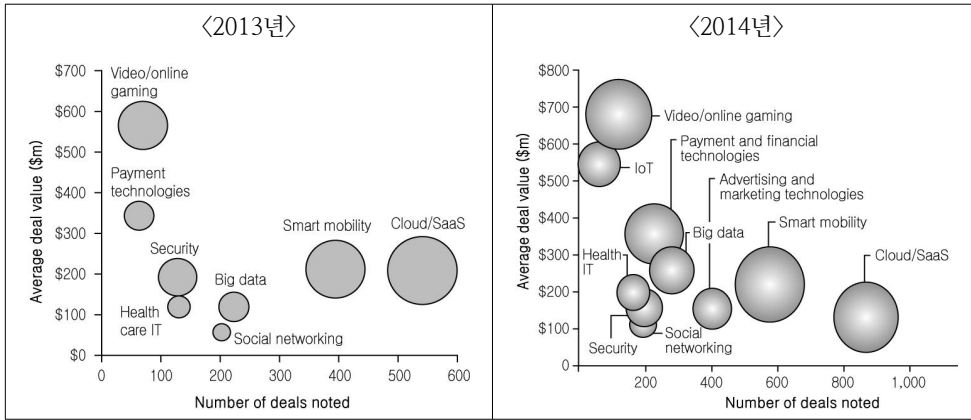
- 주: 1) 451 Group M&A KnowledgeBase의 데이터를 E&Y가 분석한 자료임  
 2) ICT 세부 분야는 통신 장비(Communication equipment), 컴퓨터, 주변장치 및 전자(Computer, peripherals and electronics), 반도체(Semiconductors), 소프트웨어/SaaS(Software/SaaS), IT서비스(IT Service), 인터넷(Internet)이며, 인수대상기업의 업종이 ICT인 경우로 한정  
 3) 기업이 인수한 경우뿐만 사모펀드 등이 지분투자한 경우 포함  
 자료: EY, 각 분기별 Global technology M&A update.

ICT M&A에서 가장 빈번하게 거래가 성사되는 분야는 클라우드/SaaS와 스마트 모빌리티로,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액측면에서 보면 2014년은 사물인터넷 분야의 부상이 특징적이다. 2014년에만 60개 정도의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M&A되었으며, 그 규모는 130억 달러 이상이다.<sup>16)</sup> 대표적으로 구글은 2014년 1월과 6월에 각각 네스트 랩(Nest Labs, 32억 달러)과 드롭캠(Dropcam, 5억 5,500만 달러)을 M&A하면서 사물인터넷 사업 전개를 위한 적극적 행보를 보였다. 한편, 전년과 비교하면 2014년에 결제와 금융 기술 분야의 거래규모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모투자(PE: Private Equity) 회사들이 이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것에서 기인하였다.<sup>17)</sup>

16) EY(2015), p.7.

17) EY(2015), p.7.

[그림 8] 글로벌 ICT M&A를 주도하는 주요 분야 트렌드 변화



- 주: 1) 평균 거래규모는 거래금액이 공개된 기준
- 2) 거래건수는 거래금액이 비공개된 거래도 포함
- 3) 원의 크기는 당해 년도 총 M&A 거래금액에서 각 분야의 비중 의미

자료: EY(2014), p.3.; EY(2015), p.2.

지역적 분포를 보면, 미국과 유럽에서 글로벌 ICT M&A의 80% 정도가 발생하였다.<sup>18)</sup> 2014년 전체 M&A 거래의 55% 이상이 미국 기반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M&A된 기업의 60%는 미국 기반 기업에 인수되었다.<sup>19)</sup> 즉, 미국은 M&A 타겟이 되는 ICT 기업 뿐만 아니라 M&A 주체인 글로벌 기업들이 풍부한 시장이라 할 수 있다.<sup>20)</sup> 2014년 M&A 거래금액 기준으로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가 단연 높으며,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M&A가 활발하였다. 사모펀드에서 M&A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동종 또는 유사업계내의 M&A로 자사 경쟁력 강화 및 시장 확대의 의도로 해석된다.

18) Mooreland Partners(2015), p.3.

19) Mooreland Partners(2015), p.3.

20) EY(2015)에 따르면 중국의 ICT 기업들(예: 알리바바, AutoNavi 등)이 최근 활발하게 M&A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소규모 지분 투자의 형태로 이뤄져 규모 순에서는 상위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



〈표 5〉 글로벌 ICT 분야 상위 M&A 리스트(2014)

피인수업체	분야	인수업체	규모 (백만 달러)
WhatsApp (미국 모바일 메신저)	소프트웨어/SaaS	Facebook (미국 SNS)	22,000
Concur Technologies (미국 기업 IT/SW 솔루션)	소프트웨어/SaaS	SAP (독일 기업용 SW)	8,300
International Game Technology (미국 슬롯머신 제조)	컴퓨터, 주변장치 및 전자	GTECH (이탈리아 온라인 복권 회사)	6,498
MICROS Systems (미국 PoS HW/SW제조)	소프트웨어/SaaS	Oracle (미국 SW)	5,300
Bally Technologies (미국 슬롯머신 제조)	통신 장비	Scientific Games (미국 복권 시스템 개발·판매)	5,149
Rational Group (영국 포커 게임/콘텐츠)	인터넷	Amaya Gaming Group (캐나다 온라인 게임)	4,900
TIBCO Software (미국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SW)	소프트웨어/SaaS	Vista Equity Partners (미국 사모펀드)	4,300
Sapient Corporation (미국 소셜/모바일 광고)	IT 서비스	Publicis Groupe (프랑스 광고업체)	3,700
Riverbed Technology (미국 네트워크 최적화 솔루션)	인터넷	Thoma Bravo (미국 사모펀드)	3,600
Trulia (미국 부동산 포털)	인터넷	Zillow (미국 온라인 부동산 정보)	3,500
상위 10건의 평균 규모			6,425

자료: EY(2015), p.7. 재구성.

## IV. 종합 및 시사점

최근 5년간 추세를 보면 2014년의 글로벌 ICT 산업 회수시장은 거래규모 및 건수에 있어서 높은 성과를 보인 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많은 자본이 공적시장(public market)에서 사적시장(private market)으로 옮겨감에 따라 기업간의 협상으로 결정되는 M&A 시장에서 대형 거래가 증가하였다. 미국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회수 중 상위 10위 이내의 IPO 규모 총합이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액을 하회하였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규모 순으로 상위 10건의 IPO 평균 규모가 상위 10건의 M&A 평균 규모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는 기존 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 창출 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 분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갖고 있다는 것이며, 반대로 창업·벤처기업 및 투자자 입장에서는 IPO보다 M&A가 더 매력적인 회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모바일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알리바바의 IPO가 있었으며, 국내에서도 다음의 카카오 인수 등 대형 거래들이 이 분야에서 발생하였다. 한편, 최근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들의 잇따른 인수 소식을 통해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약세를 보였던 하드웨어 분야가 재조명 되고 있다. 이들 분야에서 회수시장이 활발하다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더불어 창업도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셋째, 창업초기에 회수가 이뤄지는 비중이 높다. IPO는 소요기간이 증가하고 있지만 2013년 평균 소요기간이 7.1년이며, M&A는 5년 미만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보고 있음을 고려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업의 성공적 회수 여부가 대부분 창업초기에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전통적으로 미국이 모든 회수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IPO의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이 선전하면서 중국 ICT 산업의 높아진 위상을 엿볼 수 있다.

ICT 산업 특성상 빠른 시장변화와 기술발달에 발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참신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가진 창업·벤처기업의

생태계 유입은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규모로 회수를 할 수 있는 시장의 존재는 필수적이며, 회수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되어야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가와 이들에게 투자할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 차원의 개선도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글로벌 시장의 활발한 회수시장이 사업 역량 확대 및 미래 수익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도기업들에 의해 조성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네이버 및 다음카카오가 M&A를 통해 사업영역을 확장하려 하며, M&A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의 창업기업(예: 엘로모바일, 500V 등) 등장 등으로 국내 M&A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sup>21)</sup> 글로벌 회수시장과 비교할 때 특히 M&A 시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시장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주요 트렌드로 안착되어 국내 회수시장도 활성화되길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삼정KPMG (2014), “2014년 상반기 글로벌 ICT 산업 M&A 동향”.
- 엘로모바일 (2015), “엘로모바일 사업보고서(2014. 12)”.
- 조유리·강유리·김홍식 (2014), 『ICT중소·벤처의 M&A를 통한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대기업의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기본연구 14-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5), “국내 벤처캐피탈 현황”, Venture Capital News Letter, Vol.89, pp.35~52.
- NHN엔터테인먼트 (2015), “사업보고서”.
- Outstanding* (2015. 5. 12), “벤처업계 ‘M&A 큰손’들은 어떤 기업을 샀을까”.
- Platum (2015), “2014 연간 국내 스타트업 투자동향 보고서”.

21) *Outstanding*(2015. 5. 12).

- CB Insights* (2013. 11. 7). “It’s Definitely a Marathon – Venture-Backed Tech IPOs Take Seven Years from First Financing.”(검색일: 2015년 5월 15일).  
\_\_\_\_\_ (2014. 12. 25). “The 20 Largest VC-Backed Tech Exits of 2014 (\$55B in Value).” (검색일: 2015년 5월 21일).  
\_\_\_\_\_ (2015). “The 2014 Global Tech Exits Report.”
- EY. 각 분기별 “Global technology M&A update.”
- EY (2014). “Global technology M&A update: October-December 2013 and year in review.” Issue 22.
- \_\_\_ (2015). “Global technology M&A update: October-December 2014 and year in review.” Issue 26.
- Forbes* (2013. 9. 17). “The Software Revolution: A Sector Trends Series.”
- ICON Corporate Finance (2015). “Tech M&A Review 2014.”
- Mooreland Partners (2015). “Mooreland Tech M&A Report: Beyond The Headlines.”
- PwC (2015). “Global Technology IPO Review Full-year and Q4 2014.”